



광주2025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컴파운드 남녀 개인예선이 치러지는 6일 오전 광주남구 광주국제양궁장에 설치된 천막으로 관객석에서 바라보는 경기시야가 방해되고 있다. /뉴스시스

“광주세계양궁 경기장, 관중은 선수 볼 수 없는 구조” 불만

대형 몽골텐트가 관중석 시야 방해... “개선 시급”

광주2025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대회 이틀째 본격 경쟁에 돌입했지만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은 정작 선수들의 활약을 직접 볼 수 없어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관중석에서 선수들의 활 시위 당기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 망원경까지 동원했지만 광주국제양궁장은 관중만 볼 수 있는 구조다.

76개국 731명의 선수단이 출전한 광주세계양궁대회는 지난 5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공식연습으로 개막했으며 이틀째인 6일부터 컴파운드 예선을 시작으로 대전에 돌입했다.

출전국은 컴파운드·리커브 각각 5개, 총 10개의 메달을 놓고 12일까지 경쟁을

펼친다. 예선은 광주국제양궁장, 결선은 5·18민주광장에서 관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예선전 관람을 위해 경기장을 찾은 외국 관광객을 비롯해 수백명의 관중들은 선수들의 모습을 지켜 볼 수 없었다. 활을 쏘기 위해 선수들이 도열하는 사대 뒷편에 설치된 대형 몽골텐트 수십개가 시야를 가려 80m 거리의 관중만 보였다.

광주국제양궁장은 사대를 중심으로 뒷편과 오른쪽 옆에 관중석도 설치돼 있다. 하지만 경기장 옆의 관중석은 안전상의 이유로 등으로 개방하지 않는다.

몽골텐트는 선수들이 화살을 쏘 뒤 무더위를 피해 장비를 정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 때문에 관중들은 사대 뒤에서 경기를 관람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몽골텐트에 가려 선수들이 활을 쏘는 모습만 볼 수 있다. 광주세계양궁대회 입장권은 2만 원, 오전권 1만 원, 오후권 1만 6000원이었다. 지난 7월 22일부터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이날 경기장을 찾은 관중 A씨는 “2024 파리올림픽 양궁 경기 중계장면을 연상하고 망원경까지 구입해 경기장을 찾았는데 몽골텐트만 보인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관중 B씨는 “관람객이 많지 않아 관중석 높은 곳까지 올라갔는데 시야 개선이 안 된다”며 “너무 더워서 관람은 포기해야겠다”고 발걸음을 돌렸다.

스페인 선수단 관계자는 “사대에 들어갈 수 없어 관중석에서 선수의 모습을 지켜보며 코치를 해주어야 하는데 텐트에 가

려 볼 수가 없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양궁장에서는 컴파운드에 이어 9일부터 리커브 예선이 펼쳐지며 파리올림픽에 출전했던 김우진과 김제태·이우진을 비롯해 여자 임시현·강채영·안산이 출전한다. /기동취재부

광주시민 2명중 1명 “AI 선도도시 될 것”

광주연구원, AI 기업 아닌 일반시민 605명 대상 이례적 설문 10명중 8명 “AI 경험 ‘삶의 질 ↑’... “교통·에너지 우선 적용” “일자리 ↓·정보유출은 우려”... 비용 부담, 인프라 구축은 과제

정부가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가운데 광주시민 2명 중 1명은 AI 선도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10명 중 8명은 AI 사용 경험이 있고, 실제 도시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예상했다.

교통, 에너지 분야 우선 적용에 방점을 찍은 반면 AI로 일자리가 줄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적었고 비용 부담과 인프라 구축, 정보 신뢰도는 풀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7일 광주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25일 시민 605명을 대상으로 자기입식 온라인 조사와 고령층 면접 방식을 통해 ‘포용적 AI 대전환 방안’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98%포인트다.

이번 조사는 기업이나 공급자 아닌 수요자인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조사 결과, 광주가 AI 선도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54.5%는 ‘가능하다’고 밝혔고, ‘가능하지 않다’는 7.4%에 그쳤다. 또 79.2%는 AI서비스 이용경험이 있고, 이 중 21.1%는 ‘생성형 AI를 거의 매일 사용 중’이라고 답했으며, AI사용자 10명 중 7명(68.4%)은 ‘생성형 AI로 근무시간이 단축됐다’고 밝혔다.

또 64.0%는 AI가 ‘도시문제 해결’에, 73.2%는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행정·공공분야 AI 도입에 대해서 92.4%가 ‘찬성’했고, 이 중 29.6%는 ‘적극 도입’을 주문했다.

우려와 과제도 적잖았다. 81.2%가 ‘AI로 일상이 편해질 것’을 기대한 반면 ‘일자리 대체’,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 시민도 각각 76.7%와 71.1%에 달했다. 창의성 감소, 디지털 격차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AI 서비스 구독료 부담(65.6%)과 이용의 어려움(28.4%), AI가 윤리 판단을 할 수 없고(32.2%) 정보신뢰도가 높지 않은 점(50.9%)을 감안, AI 3대 장벽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0.3%가 교육·훈련 기관 부족을 꼽은 점도 곱씹어볼 문제다.

시민체감형 서비스 개발에 적합한 분야(복수응답)로는 교통이 43.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안전·치안(28.8%), 교육·학습(26.6%), 복지·돌봄(18.5%), 의료·헬스케어(18.0%), 환경(15.7%), 문화·여가(12.6%) 순이다. IT산업에 비해 신경써야 할 부분(이하 단수응답)으로는 31.2%가 인프라 구축을 꼽았고, 인력 양성(20.8%), 연구 개발(18.5%), 기업 유치(15.0%), 창업 활성화(6.0%)가 뒤를 이었다. /전광훈 기자

옛전남도청 복원 임박, 운영기관 선정 난항... “시·문체부·정치권 나서야”

옛전남도청이 내년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지만 운영 기관 선정이 지지부진 하면서 운영 난항이 예상된다.

5·18민주화운동 최후항쟁지인 옛전남도청이 오월정신을 계승하고 광주를 알리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복원에 그치지 않고 각계각층이 적극 나서 향후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 복원추진단은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 조직 운영을 마친다고 7일 밝혔다.

복원을 마치고 전시 콘텐츠를 채운 옛전남도청은 오는 2026년 5월 정식 개관을 할 예정이지만 내년부터 이곳을 운영할 기관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내년 옛전남도청의 운영 예산과 조직 개편을 위한 행정안전부와의 논의나 예산안 제출도 늦어지고 있다.

옛전남도청 운영 기관 선정이 더딘 이유는 운영 기관을 정하는 주체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당초 복원 이후 어떤 기관이 도청을 운영할 지 명문화하지 않았고,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공론화도 뒤늦게 진행됐다. 다만 문화계는 옛전남도청 운영 기관 선정 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옛전남도청 본관 별관 등 6곳의 5·18역사공간을 포함한 민주평화교류원의 운영을 맡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주요 시설인 ACC의 운영 사항은

복원추진단 12월 운영중료... ‘ACC분리VS준치’이견 팽팽 ‘복원협의회?조성위?’ 운영 주체 정하는 기관도 불투명 ‘반목 안돼... 충분한 숙의, 상급기관·정치권 역할 다해야’

관련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라는 점에서도.

반대로 복원추진단은 당초 심의를 할 조성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은 데다 복원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광주시·옛전남도청원형복원법시도민대책위가 운영 주체를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운영기관 선정이 지연되는 또다른 이유는 옛전남도청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내 유치 또는 분리를 두고 이견이 있어서다.

문화계와 광주시는 ACC내부에 별도 기구를 두고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류재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회장은 “복원된 옛전남도청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 계획 안에서 통일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며 “옛도청이 ACC내 민주평화교류원의 핵심 축으로서 나머지 5개원과 맞물려 가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도청 원형을 훼손한 ACC로부터 도청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홍성철 옛전남도청원형복원법시도민대책위집행위원장은 “ACC가 민주평화교류원을 운영하면서 5·18흔적이 담긴 도청 원형을 훼손해 복원을 진행한 것”이라며 “오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별도

기관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교류원의 운영 주체인 ACC와 상급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별다른 입장이 없어 지역 사회의 합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복원추진단은 운영 방안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내년 추진단의 한시연장 운영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갈등 끝에 복원된 옛전남도청의 청사진이 체계적인 운영 방안이 정해지지 않아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기훈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장은 “갈등 끝에 복원된 옛전남도청의 가치를 살리는 중대한 기로에 있지만 그동안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 절차를 이유로 운영 주체가 줄속으로 결정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충분한 지역사회 간 숙의를 거쳐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도 ‘시민 합의에 따르겠다’며 뒷받침 지지 말고 광주를 책임지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국제 사업을 이끄는 기관 답게 적극 입장을 밝혀야 한다. 모두의 과제인 만큼 정치권도 나서 논의의 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염선호 기자

상사화랑 머물고! 상사호랑 짝고!

제25회 영광불갑산 신년대축제

2025. 9. 26. (금) ~ 10. 5. 일

영광 불갑산 관광지 일원

주요 프로그램

- 상사와 in Love 콘서트 (신호봉) 9. 26(금) 오후7시
- ‘그럴때 있으시죠?’ (김제동) 10. 4(토) 오후6시
- 상사와 대학가요제
- 상사와 꽃길걷기
- 상사와 달빛야(夜)행
- 브레드 이발소 9. 27(토) 오전11시, 오후3시
- 도래미 프렌즈 10. 4(토) 오전11시, 오후3시

주최/주관 :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추진위원회 / 집행위원회 후원 : 영광군의회, 영광군의회, 한국수업평가학회, 신협중앙회, 농협 영광지부, 동행, K210(주)코리야